

어느 이웃사촌들의 이야기

양충석 /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눈부신 봄날이다.

목련, 개나리, 벚꽃이 만발하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등 산과 들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향기로운 봄꽃들로 넘쳐난다.

새봄을 맞아 나무와 풀들이 자신의 꽃망을 터트리고 앞 다투어 새순을 피운다.

영국의 시인 T. S. Eliot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너무 아름다워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뿐, 아직도 그 뜻이 모호하고 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분분해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소한 올해 대한민국의 4월은 우리에게 너무 잔인하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TV를 볼 수도 없고 신문을 펼치기가 두렵다.

큰 녀석을 군에 보낸 우리의 심정이 이리 할진대, 사고 당사자들의 부모형제와 가족친지들의 심경은 어떠할까.

90년 초 훈풍이 불던 어느 초여름 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작은 녀석의 첫돌 잔치를 이곳에 와서 했는데 그 녀



석이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 보다.

이사온 지 얼마 안 돼, 앞 베란다에 행운목이 축하하듯 탐스럽게 피고 꿀 향기가 집안 가득 진동을 할 때 이웃사촌들의 방문을 받았다. 아파트 통로 서른 가구 중 원하는 세대들로 열 집이 모여 만든 모임이 「한마음회」였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이면 부부 동반으로 스무 명의 회원들이 등산을 간다. 시간이 흐르다보니 충북의 대표적인 명산 속리산, 소백산을 비롯한 영동의 천태산과 심지어 충남 금산에 있는 대둔산도 두번이나 다녀오는 등 많은 산행을 했고 추억도 많다. 그리고 휴일이면 홀수와 짝수 호수가 편을 나누어 족구 시합을 하고, 야낙들은 해장국 혹은 부침개와 막걸리를 준비했다. 축구나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 집에 모여 막걸리를 한 말씩 받아다 큰 양푼에 부어 그릇을 띄워놓고 먹어가며 함께 응원을 한다.

언젠가 비오는 날 퇴근을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니 '묵 쳐 먹을 사람 000호로 모여라' 라는 메모가 붙어있다. 시골에 어머니께서 도토리묵을 쑤어 보내오셨다고 식기 전에 먹잔다. 그때 알았다, 육이 아니라 묵은 간장

에 처서 먹는 다는 것을…….

봄이면 나물로, 여름이면 농사지은 옥수수로, 가을이면 버섯을 나누어 먹는다. 심지어 아침에 급할 때는 밥도 '꾸러' 오고가는 사이들이다.

지난 셋째 주 일요일에는 산행 대신 강원도 삼척의 환선굴을 다녀왔다.

열 집의 회원들 중 네 집이 이사를 가서 세 집은 청주에 살아 항상 같이 참석을 하지만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 간 회원은 참석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서 약속을 하고 만나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 물론 묵시적이지만 아낙들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안다.

삼척의 언덕 위 횃집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덕담을 나누며 즐겁고 가슴 뿌듯한 하루를 보냈다. 새침테기 인줄만 알았던 아낙도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 수업을 받았는지 모두가 노

래를 너무도 잘 한다. 이사를 간 한 회원은 다시 이사를 오겠다. 그런데 이사 올 집이 없다, 우리 아파트 통로에는…….

이를 두고 진정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건가, 앞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고, 아래 위 층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요즘 세태인데 말이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눈물로 나라의 아들 46명 이름을 부르는 뉴스 기사를 보았다.

세상을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채운 4월이다.

하지만, 마냥 안타까움과 슬픔에 잠겨있을 수많은 없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봄을 활짝 열어 깊은 슬픔과 충격을 이겨내고 늘 향기로운 가슴을 지닐 수 있으면 좋겠다.

2010년 4월 2일

충북일보 「마음으로 보는 세상」면 게재

꽃처럼 신록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이다.

연두색 아기잎사귀로 가득한 5월은 숲의 한 해중 색상이 가장 고운 때이다. 흐드러지게 피어 봄 향기를 전해주던 봄꽃들이 이제 새 순으로 옷을 갈아입고 녹음을 준비하고 있다.

몇 해 전이었던가 업무관계로 제천 출장을 가게 되었

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승용차를 두고 기차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제천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다되었기에 역(驛)근처의 중국 음식점을 찾았다.

식사를 다 마쳐갈 즈음 시골 어르신들인 듯한 노부부가 식당으로 들어오셨고, 할아버지는 국물 있는 짬뽕을 먹자하시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를 꺼내 세



어가며 집에 갈 버스비를 셈하시는지 자장면을 먹자하신다. 얼핏 보니 잔돈이 좀 모자라신 것 같다.

마침 식사를 다 마쳤기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음식 값을 계산하며, 짬뽕으로 두 분의 음식 값을 내드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제가 계산을 했으니 노여워 마시고 자식이 사 주신다 생각하고 편히 드시라' 하니 두 분이 일어나서 번갈아 가며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신다.

옆에서 식사를 하던 신사 분들이 '참 우리가 다 고마우이, 우리도 배워야겠어.' 한다. 하도 멧쩍어 열린 식당을 나와 하늘을 보니, 옆에 서있는 커다란 둥구나무의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연두색으로 반짝이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그 때가 요즈음과 같은 계절이었나 보다.

그 후 언젠가, 퇴근길에 술 한 잔이 생각나기에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먹을 요량으로 순대 집을 찾았다. 순대를 포장해 달라하고 기다리며 옆좌석을 보니 할아버지 세 분께서 변변한 안주도 없이 김치에 소금으로 안주를 해서 약주를 들고 계신다.

주인아주머니에게 순대를 한 접시 떨어달라고 해서 갔다드리며 '안주해서 드시라' 하니, '젊은 양반은 누군데 이런 걸 사주느냐'며 의아해 하신다. '죄송합니다, 안주가 없으시기에 제가 사는 김에 조금 더 산 것이니 편히 드시라' 하니, '그러냐, 알았다, 그럼 잘 먹겠다'고 하는데 기분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뒤통수가 따가움을 느끼며 멧쩍게 순대 집을 나오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 '순수한 마음이 그 분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군에 간 큰 녀석이 구보를 하다 무리를 했는지 허리가 아프다며 휴가를 나왔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란다. 많이 놀라고, 속도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찌겠는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조심을 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한 것을. 부대의 윗분들 그리고 군의관들과 상의해서 청원휴가를 신청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도 잘 끝나 지금은 부대 귀대를 위해 집에서 가료(加療)중이다. 몇날 며칠을 어찌나 경황없이 보냈는지 정신이 멍멍하고 아련하기만 하다.

시간이 날 때 마다 숨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눈물겹도록 간절하다. 자식(子息)에 대한 모정(母情)은 사랑을 넘어 처연하리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큰 녀석은 죄송하다며 미안해하고 오히려 병원비를 더 걱정한다.

언젠가 보았던 어느 여류 작가의 글이 더 생각나는 요즈음이다.

“이제 잘난 사람보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서로 이해하고 걱정해 주며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남·여 불문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 비나 눈 오는 날을 좋아하며, 잘 울고 잘 웃을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다”

여기에 허락한다면, 하나 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태고 싶다.

2010년 4월 16일

충북일보 「마음으로 보는 세상」면 게재